

福音新聞

宣教60~70周年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社会에 變革을
- 2、教会에 革新을
- 3、世界에 所望을

선교 60주년 기념

특별하기연수회

—교역자와 신도들이 함께 모여

금년 여름에 제일대한국
독교 선교60주년을 기념하
여 교역자와 신도 218명이
한자리에서 특별 연수회를
가짐에 깊은 의의가 있었
다 장소는 교오베의 有馬
温泉 有馬御宛에서 8월 20
일부터 28일 (교역자20일~
26 신도와함동26일~28일)
까지 가졌다 강사는 흥현
설박사 (감리교 신학대학학
장) 高崎毅 (東京神學大學
學長) Rev. R.M. Ransom
(캐나다선교 교육감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
을 모시고 연수회를 가졌
다는것은 우리교회의 질을
나타낸것같다 세상사의 강
의내용은 우리가 배워야할
=현대신학의 동향과 그평
가= 그리고 신의죽음의신
학자들의 사상을 소개 분
석 평하여 우리생각을 정
리해 주셨다 기술사회와목
회자 소외된 인간사회의목
회자의 임무 신도덕 하나
님은 정치가이다 라는것
그리고 목회자의 윤리등의
내용이었다 다음에는 교회
의 혁신 교회는 선교에진



민한 관제를 났을때 만이
새로워진다 그리고 남을위
한 선교와 예배 중의모습
교회의 표징등의 자세한강
의 내용이었다 그다음에는
오늘의교회 선교와예배 중
의모습 교회의표징등의 자
세한 강의였다 다음은 오
늘의교회신학이었는데 교회
의기능으로 전도 교육 봉
사의 신학자 성서적 교회
적 해명이 있었고 무엇보다
다도 교회자신의체질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뿐만아니라 총회각국과
각기관의 연구발표와60-70

주년을향한 계획안발표가있
었다 그리고 각지방별로와
멜토론과 새로운교회와 목
사상에관한 세미나를 분단
으로 나눠서 가졌다 그리
고 25일 주일에는 판서지
역 각교회에 분산하여 예
배에 봉사했다 26일부터는
교역자와 신도가 합동하여
모 세상사를 모시고 신도
의자명 혁명시대의 신도의
위치 이원론적 신앙을 극
복할것 모이는교회와 홀어
지는교회 가정과 사회에있
어서의 신도들의 책임 교
회교육 가정교육에관한 중

대성 세계각처에서 일하고
있는 신도들등의 의의깊고
감명깊은 강의들이 있었다
저녁마다 9분단으로 나눠서
강의를 중심한 진지한 토
의가 있었고 만도에는 기
도의 제목을정해서 집중적
으로 기도를 드렸다 마지
막 종합토론에는 각분단에
서 토의된것을 수집해가지
고 그중에서 세가지문제①
가정교육문제 ②현실에 맞
는전도방법 ③선교60-70년
의 10개년 전도계획을 어
떻게 성공시킬가등으로 축
소해서 토의하였읍니다 또
하나의 인상깊이 남아있는
것은 폐회예배시에 성찬식
거행이었는데 이에 참가한
자들은 그리스도께로서 받
은바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각기 생활장소로 돌아갔다

여 주안에서 피차 위로받
고 복음전도에 힘쓸것을격
려 하였다 돌아오면서 방
문 대원은 도리혀 병중에
서 더 강한 믿음가진 형
제들께서 믿음의 자극을받
았다고 하였다

강신명박사 강연

西成地域에서

西成지역에서는 교포를위
하여 금강학원 西成민단
西成교회가 공동주최로 민
족의 정신적 혁신이라는
제목으로서 서울 새문안교
회 목사 강신명 박사를모
시고 대강연회를 하였다

강박사는 6월26~27일간
에 민단회의실에서 이스라
엘과 서구 덴마크나라가 어
찌하여 그 강토 속에서일
어나 오늘의 훌륭한 국가
를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실례를 들면서 우리민족의
살길을 가르쳐 주셨다 28
일은 니시나리교회에서 회
망을가진 민족에게 하나님
이 힘을 도와준다는 뜻의
말씀으로 해외교포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강신명박사는 6월21에 나
고야교회에서 중부지방 교
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
씀을 전해주시고 28일 저
녁에는 동경교회에서 예배
인도하시고 7월3일부터 열
리는 세계대회에 출석하셨
다

한센씨병 요양소 방문

판서지방 여 전 도 회

여전도회 후생부장 윤성
남집사 전도부장 김만립집
사 후생부원 박필홍집사와
대판교회 강 권철의 다섯
여 전도회원은 김원치 목
사를 강사로 모시고 岡山
光明園 愛生園 香川県 青
松園 3개소의 한센씨병 (나
병) 요양소를 위문 방문을
하였다 7월 15~17일의 삼
일간 그들은 일본사람과 우
리 한국인 환자를 방문하

선교 70주년을 향하여

선교60주년~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우리 총회는 불
탄 의욕을 가지고 지난 5월말 부터 일본전국각지의 우
리교회를 하나 하나 방문한바 선교70주년을 향하는 기
념행사와 사업에 대하여 온 교인의 충분한 이해와 찬
성을 얻게되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3년간 1,000만원을 목
표로 헌금하기로 한결과 벌써 예정작을 돌파하고있다

東京교회		船橋교회	
이 애 라	1.5만원	맹 천 휘	2 만원
로 명 옥	3.3만원	권 부 인	5 만원
구 임 이	1.8만원	박 영 효	10 만원
한 필 신	50 만원	신 기 문	3 만원
김 송 랑	6 만원	송 성 주	3 만원
西新井교회		구 순 선	
김 한 필	48 만원	구 순 선	3 만원
김 재 왕	5 만원	손 갑 로	3.6만원
강 복 수	4 만원	손 년 히	1.8만원
황포 순이	2 만원	調布교회	
최 계 남	1.8만원	박 두 성	1 만원
양 분 이	1.8만원	허 명 구	10 만원
송 양 립	1.8만원	허 경 선	18 만원
		한 복 여	2 만원

강 영 일	0.5만원	홍 비 홍	1.8만원
名古屋교회		윤 주 홍	3.6만원
박 명 준	3.6만원	이 명 효	2 만원
도 연 이	1 만원	차 분 배	1.8만원
김 남 석	1.8만원	조 원 국	20 만원
김 분 악	1.8만원	이 성 원	1 만원
문 정 원	3.6만원	김 세 용	0.5만원
이 경 래	7.2만원	김 광 수	30 만원
이 영 선	10 만원	서 제 훈	10 만원
박 영 필	10 만원	岐阜교회	
서 또 춘	15 만원	김 승 준	1.8만원
이 차 득	3.6만원	김 병 기	5 만원
김 보 배	3.6만원	정 순 더	3.6만원
윤 분 득	3.6만원		~계속~

카 나 다 방 문 기 <1>

이 인 하

출 발 전

3월 초순이었다 12년전 유학했던 토론토대학 나쓰 신학대학 학장께서 편지한 통이 총회사무실에 날라왔다

금번 캐나다 방문은 이때로부터 실현이 되기 시작했다. 감격스럽스런게도 나 같이 젊고 미숙한 자에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통이었다. 드디어 4월초에 캐나다 장로회 선교부에서 총회 60주년 기념행사 계획도 듣고싶으니 학위를 받을겸 방문해달라는 초청장과 비행기표까지 왔다. 캐나다의 친구부인들이 운동하여 아내의 여비를 준비하였기에 같이와달라는 편지와 아내의 비행기표까지 동봉되어 있었다. 모든일이 꿈과같이 진행이 되었다. 총회와 가와사기교회 유지들과 친구들이 친절하게도 모금하여 체재비의 일단을 부담해 주었다.

밴쿠버에서

마침 3월중순 열렸던 일본기독교 협의회(NCC)총회에서 갑자기 총무가 사임하게되어 서기였던 내가 4월1일부터 이 기독교 연합기관에서 총무 서리로의 일을 보게되어 스케줄이파차서 5월 3일밤에야 겨우 일본을 탈출할수 있었다. 10시간의 비행기편으로 밴쿠버공항에 도착하니 시간변경선 때문에 아직 5월 3일 정오였다. 환영나와준 동창친구 목사님과 친구가운데 나 까무라 선교사를 반갑게 만났다. 밴쿠버에서 한국인교회와 일본인교회에서 특의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상철목사 얼굴도있었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조용한 환경속에서 떠나기 전 분주하였던 모든 피곤을 풀고 5일 주일 두 교회에서 아침 저녁 설교로 봉사했다. 특히 저녁예배는 나 까무라 선교사가 출석중인 교회의 기념 예배에서 시내 모든 교인들이 모여 성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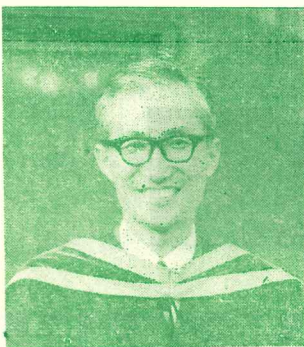
에드몬톤에서

저녁예배를마치고 곧 에

드몬톤시를 향한 비행기의 사람이 되었다. 밴쿠버에서 두시간 걸리는 에드몬톤에는 과거 총회에서 전도사로 시무하던 김용진선생이 대학에서 연구중이다. 밤을 새워가면서 그간의소식들을 나누었다. 캐나다에서 썩좋은 교회와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 장로로서의 안수도 받고 이민으로 들어온 분들에게 좋은증거와 전도의 생활을 하고있는것을 보았을때 꼭 기뻐다. 고생하면서도 우수한성적으로 금년가을에는 철학박사의 학위를 받게될것으로 안다. 앞으로 그 땅에서의 좋은 공헌이 기대된다.

토론토졸업식에 참여하여

6일 비행기로 에드몬톤을 떠나 3시간만에 토론토공항에 대었다. 캐나다장로교회 인사들이 많이 환영과 있었다. 과우엘목사부부, 할복목사부부, 신영자전도사, 이민으로 간 김해천집사의 그 리운 얼굴들을 보고 뜨거운 무엇이 올라오는 가운데 서로 악수했다. 다음 7



일 저녁이 졸업식이였다. 토론토대학 원형 강당에는 이천명을 수용하는데 졸업생들의 가족과 신학대학의 졸업식인 만큼 시내 교인들로 거의 만원이 되었다. 8시 정각 학장을 선두로 교수들 대학 이사들의 가지각색의 후드(학위에 따라 다른 색으로된 어깨에 둘러는 것)가 빛나는 행진으로 입장이 있었다.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관중들이 보는가운데 일반 신학생들의졸업증 수여가 먼저였다. 그다음 신학사 신학석사 박사의 순서로 학위 수여식이 계속되었다. 금번 박사학위는 네 사람이 받는데 그가운데는 과

거 선교부 부장으로 일본에 찾아온 에반스목사와 테리모아목사가 있었다. 알파벨의 순서로서 세번째 내가 받을 번이었다. 학장앞에 나가서니 교수 한분이 학위수여하게 되는 이유와 모든 경력을 소개해 주었다. 그 순간 눈을감고 과거를 회상할때 종전 직후 전도사되려는 뜻을 갖고 돈 3백원을 전재산으로 주머니에 넣고 동경에 올라오던때로부터 다마가와교회에서의 고생스럽던 시대와오늘까지의 일들이 주마등과같이 뇌리에 지나갔다. 한편에는 말할수없는 두려움이 나를 잡기 시작했다. 학위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순간 나는 겸손해지며 모든 것이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왔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를 길러준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대한 감사의 념을 금할수없었다. 학장 앞에 끌어앉으니 라틴어로의 학위증인양독되자 교수 한분이 신학박사의 자색 후드를 내목에 둘러쳤다. 그순간 관중들의 박수가 만당을 울렸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식이 다 끝난 뒤에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었는데 토론토의 한국교인들이 자기의 일같이 기뻐해 준 일을 잊지 못하겠다.

—계속—

채 피곤한 몸으로 마이너저회관 홀에 섰을때 어두운 관중석에서 하얀 동정을 보았을 때이다. 초록저고리를 입은 그 여인은 낯선 땅에서의 긴장감을 풀게 해 주었다. 그후 만난 여학생에게서는 그와 반대로 홀깃 보는 시선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한복이주는 인상 그것은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인자한 아름다움 이어야 겠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 그후 여러곳을 돌아 다니며 연주를가졌지만 한 집안 사람들끼리 모인것 같아 내 나라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깝게 여겨 졌던것은 처음이었다. 허지만 안타까운것은 많은 교포들이 자기 조국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젊은 이들은 꼭 날카롭게 질문을 하며 알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았으나 아직도 기성 세대에선 사대주의 사상이 조금 남아 있는것 같애. 그건 그렇지 않다고 자세히 말씀 드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번 청년들과 자리를 같이하여 법적지위문제, 조련제에 의한 민단제의 교육문제 등등 많은고충을 들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서로 고생을 했지만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언어가 쉽게 통 했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주고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들이었다. 허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살고 있는 사회와 관련된 또 다른 사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연주하나만의 목적과는 달리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뜻 깊은 여행을 마련 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김 목사님, 전목님 등 곁에 나타나지 않고 애 쓰신 교수 여러분들 특히 매일 식사때마다 좋은 음식 만들어 주신 교회 여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떠나는 날까지 침식과 연주와 관광등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짜 주신 여러 목사님께 또감사를 드리고 싶다.

<1968년 2월 연세대 성악과 졸업>

(연세대로 부터 이외에 이민환군의 원고도 와있지만 이번에 실리지 못했읍니다)

사과의 말씀 「전집부」

교를주는 차들 그 반면 푸른 숲에 싸인 붉은 철의 선사들 비 오는 날 향긋한 향나무 집의 차맛 화려한 기모노 차림의 여인들 역 제단을 오르 내리는 바쁜 걸음들—에서 난 내 나름의 일본을 느끼고 있었다. 단 시일 동안 본 일본의 인상은 한마디로 청결하고 조용하면서 맥박이 뛰듯 생동하는 것이었다. 허나 어쩐지 그것을 완전히 긍정해 버린다는 것은 마음 한쪽에 서 용서하지 않는 것같은 생각은 민족의식에서 일까?

외국엘 다녀오면 모두에 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해가 가는 얘기이다. 일본서 한복을 가장 감격깊게 느껴졌던것은 도착한날 저녁 연주때와 몇일후 오사카의 백화점으로 가다 고등학교 인듯한 남학생과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입은 여학생을 만난 두번이다. 첫번은 연습도 못 한

일본 연주여행을 다녀와서

朴 惠 淑

많은 난관 끝에 결국은 목적지에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다. 재일대한 기독교총회 선교 60주년 기념으로 초청을 받고 처음 해외로 나가게 되어 여간 기쁘지 않았다. 더구나 일본서 가장 유명한 관서학원 구리크립과의 협연은 큰 호기심을 가지게 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이 여행의 주 목적은 훌륭한 연주를 해서 한국 합창음악의 실력을 과시 하는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조련제와 일인들 사이에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우리 교포들을 따뜻히 위로하고 오랫동안 가보지못한 모국을 좀 더알고 이해할수 있도록 힘써야 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리고 교포들의 생활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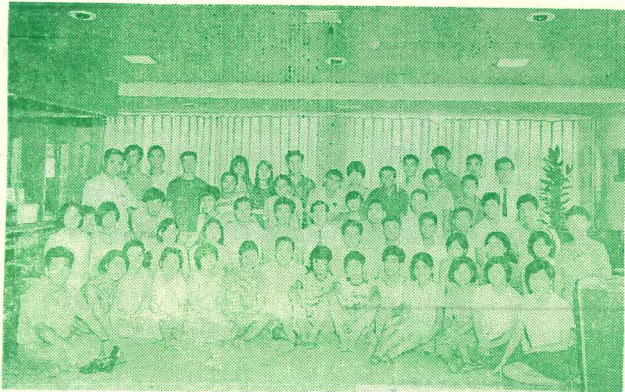
떤 것 인지? 말로만 전해 들은 일본인의 대한 국인 감정은 어떤 것인지, 그를 감정을 앞 세우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관찰하고 싶었다. 9일 동안이라는 기간은 짧았지만 숙소 주변과 차를 타고 지나가며 볼수 있는 모든 것들 실제 그 속에 들어가 같이 물건을 사며 같이 걸으며 같이차를 타고 본 것들—조그만 가게의 친절하고 아저씨 식당 뽀이나 에레베타 곁들의 입에 붙은<아리가도고자이마스> 청결한 거리 승차소에 줄지어 서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 전차 속에서 본 정숙한 여인들 커다란 백화점 은은한 주홍 불빛에 화려한 밤 거리 네온사인 줄지어 있는 바깥

全国高校生夏期学校を

ふりかえって

教育主事 金 幸 子

報告するのが少し遅れたが約一ヶ月前の全国高校生夏期学校をふりかえりながら、思いつくまま感想を述べたい。8月6日～9日迄の三泊四日の夏期学校は、高校生45名、講師9名、約54名の小団体で、緑の島、とうたわれている小豆島でおこなわれた。一般のふれこみを信じて行くと、実際には失望感を与える小豆島であったが、船の旅は快適であったし、宿泊所も恵まれた所であった。ただ、育ち盛りの高校生には、食事は少いだろうなと老婆心を持ったが、高校生という者を考える時、もちろん、学年差、個人差はあるが、自我の確立する時である。それ故、彼らは批判的であり主観的であり、真実なものに対して常に目をむけている。また、本当に自分の人生、将来に対して、深刻に考えている。夏期学校へやって来た高校生も、もちろん例外なくそうであった。教会内の高校生には、その特徴がより以上強くあらわれているのだろう。担当する者として常に緊張感を持った。やはり、彼らは、青年や大人より以上に正直な気持ちで小豆島迄やって来たのである。何かを求めて行き、そして帰ったのであろう。日本の教会内でも、全国高校生キャンプを毎年もっているが、そういう経験をした高校生の中より献身者が多く出ている事は事実である。また、献身しなくても、彼らの人生の中で、本当に貴重な時であったという事は、私も聞いて知っている事である。そ



れだけに、こういう経験が、彼らにとって、本当に信仰の決断の時になるという可能性が強い。彼らにとっても貴重な経験であると共に、指導する側にも、大きな役割を感じるのである。

一人の教師に高校生約8名という小グループで、彼らは四日間交わって来た。あるクラスを覗くと、教師はどこかに引込み彼らだけで、何を話しているのか、自由に話している姿を見た。そしてクライマックスとしての三日目の夕方、全体で楽しくリフレッシュの時をもち、心なごやかなままで、そのまま「我々の決意」という時間に入った。闇の中に輝くろうそくの光、聖歌隊の奏でる静かな讃美、牧師の奨励……一人一人、自分の手に持つろうそくを見ながら、何を考え何を思ったであろうか。私達には、とてもはかり知る事ができない。また、中央のテーブルに置かれた白い布に、各々が書いた決意、今も私はこの文章を書きながら、その時の状況、自分が書いた言葉を目

の前に思い浮べじつと眺めている。じつと眺めているというよりは、眺めさせられているといった方が正しいであろう。彼らにおいても、きっと人生のある一点で、形として残したその時に帰らされる事がある。それは、神の導きであり、神の前に立たされる事だと思う。そして、私達はそれを願う。

プログラムの面では、高校生の要求で、もっと全体の自由な交わりを持ちたいという声があった。お互に、もっともっと話し合って何かをつかみたいという正直な願いである。徹夜で話し合ってた彼らだがそれでも足りないらしい。もっと、自分達を自主的に動かせる様プログラムを組んでほしいとの事、大変結構だと思う。来年度の希望として、彼らの要求を満しう計画を望む一方、そういう彼らの中である特定の人との接触が大きな役割を果たすんだという事を念頭に置いて、担当する講師達にもより一層の緊張を望みたい。

ボンヘッファーの神学的思考

(副題) ボンヘッファーの委任統治概念より見た教会と国家の関係

1. 諸 論

1、本論の意図と問題点
この論文は教会と国家の関係を扱わんとし、主に、国家問題を扱わんとする故、教会論は補足的なものとなっている。ボンヘッファーの主要概念の一つである「委任統治」(マンダーテ)を中心として教会と国家の関係を述べるにあたって国家論の歴史的背景を一瞥し、そこで彼の位置を探り、教会観に於ては伝統的潮流に属し、特に「ルター」の線を辿りつつ、どうしてミヒトラーに暗殺計画に參與した

のか。この暴君暗殺(ティラネンモルトウ)が、基督者として妥当なことなのか。基督者がどの程度まで政権に対して服従し或いは抵抗すべきなのであるか。今日に於ては幾何なるものであるべきか。ボンヘッファーの殉教に到るまでの実践的生涯それ自体が彼の神学思想の註解書になったといわれる彼の思想内容が幾何なるものであり、そこには矛盾がないのか等の諸問題を扱うことによって今日のクリスチャンが取るべき態度というものがどんなもの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の研究せんとするものである。(続く)

(岐阜教会講師 金承俊)

福音新聞用原稿用紙

ができました

- ★ 福音新聞は紙面の事情上、長い文章は掲載しにくいのです。それが時期的に関係のある場合は「つづき物」にもできるのですが、ニュース性の記事の場合はそうはできず、しり切れトンボになったり、次号にまわされてせっかくの新聞紙面が「古閑」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
- ★ この原稿用紙は紙面と同じ字数である。13字づめにしました。1枚に10行書けますから何枚書けば何行になるかすぐわかりますので、記者や寄稿者は紙面を思い浮かべながら書いて下さいますと、編集の方もやりやすく、紙面もスッキリすると思います。
- ★ もっと若い声も紙面に参加を。3・4面の日本語版は特に教会青年達に与えられた紙面なのです。もっと各教会の青年活動ぶりや、教会青年だよりなどの若い青年達の記事を求めます。
- ★ 枚数は福音新聞用原稿用紙で10枚(市販されている400字づめの原稿用紙の場合は2枚半)ぐらいが適当です。
- ★ 福音新聞用原稿用紙は各教会に送りますから、もらってどしどし原稿を送って下さい。

福音新聞編集部
K.C. 橋文社



公 告

主恩中 総会参拝 모든 教会는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라는 宣敎六〇周年主題로 힘있게前進을 계속하고 있는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急變되어가는 時代 속에서 우리 教会가 民族과 世界를 爲하여 謙어지고 있는 使命을 確信하기 爲하여 내외 교제인사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第二四回總會와 宣敎六〇周年記念式典을 挙行하고자 此에 公告합니다.

記

一、在日大韓基督教會第二四回總會
時日 一九六八年十月九日午後二時
場所 京都教會堂 十日午後五時

一、在日大韓基督教會宣敎六〇周年記念式典
時日 一九六八年十月十一日午後二時
場所 大阪女學院大講堂

一九六八年九月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總會長 吳 得 允
書記 金 三 台

一、四地方會開催廣告

一、關東地方會
時日 一九六八年九月二十五日
場所 横浜教會

一、中部地方會
時日 一九六八年九月十七日
場所 大垣教會

一、關西地方會
時日 一九六八年九月十七日
場所 大阪北部教會

一、西南地方會
時日 一九六八年九月十日
場所 小倉教會
在日大韓基督教會四地方會々々長

一、在日大韓基督教會
女伝道會連合會第二〇回總會開催廣告
時日 一九六八年十月二日～三日
場所 名古屋教會堂
會長 金 恒 斌



聖書

愛の欠乏

マルコ 10:17~22

1、個人的には立派に見える青年が永遠の生命を得る条件を問ねたのである。彼は、殺すな、欺きとるな、父母を敬えの教えはみな守ったと答えた。彼は人間的には誰からも批難されることのない良い行いをしていて。彼は金があり名誉や地位も教育もあって実に恵まれた家庭に育ったようである。今日のような複雑でない2千年昔であるからそのような家庭的社会的環境ではそんなに努力しなくてもある程度の戒めは守れた筈である(ルカ18:23) 彼はそのことは考えずに一応自分の道徳的な善を認めさせようと思ったようである。(マタイ19:20) しかし主イエスはこの青年の考えのまちがいを正す為に、良き師よと主イエスをよんだ時に、神一人の他にはよい者はいないといひ聞せた。主イエスは事実罪を犯さないよい師ではあったが、(第1ペテロ2:22) 信仰の立場からものを考えないこの青年にはそんなに答えた方がむしろよかったからである。(ルカ18:19)

2、彼は自分が正しい人であり、神を愛する人であると思っていたが、実はそれは錯覚であった。彼には愛はなく、エゴイズムと独善だけがあることを(行5:1~2) 主イエスは指摘したのである。そこでそのエゴイズムを破って本当の愛を実行する為に、持ちものをみな売り払って貧しい人々に施してあげるようにと言われたが彼にはそれはできなかった。(マタイ19:22) 隣人を顧ることでできない人は、愛はその内にはない。(マタイ25:42) 彼には愛が欠乏していた。(1ヨハネ3:17) 人の生きるのは他人の多くの助けによってである。

(ロマ16:3~4)

3、今日の社会は学生と教師、資本家と労働者、指導者と指導される者との間に相反目している姿が目立っている。これはお互いが他を信頼せず愛していないからである。お互いが自分を犠牲にすること、自分のもっているものをもって仕えるということをしなからである。他の欠点ばかり探していて、自分の足りない所を見落しているからである

(マタイ7:3~4) 愛と理解のないところには平和と親密さがなくなる。(エペソ3:17) この世の中で自分一人では生活できない。神様はアダムをおつくりになって一人でおるのはよくないといひて助け手

であるイブをおつくりになった。(創2:18) 家庭でも愛によって助け合うのと同じように社会でも愛をもって助けあうべきである。(2コリ8:14)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証し

- 2 -

愛のむち

鈴木 一 志

“回心後、

私の属している教会から一キロ離れた所に同じ教団に属するS教会がありました。その信者さん達は毎日曜の午後近くの国立病院に行っている事をきき、私もとても一緒に行きたくなくなりました。私は自分がキリストを知る前に心の苦しみが非常に大きかったので同じ病床にある兄弟姉妹達の心にある苦しみがある様な気持ちがして同情の心が募りじっとしておられなくなり、S教会の牧師に「私も是非一緒に連れて行って下さい!!」とたのみ込みました。未だ未だ無理のできない身体ではありましたが、身体の事を考えるより行きたい気持ちが強く強く支配していました。病者に福音を伝える喜びは肉体的疲労の損失に勝って、心に大きな喜びを満たしてくれました。日曜日が来るのが本当に本当に待遠しいでした。神は私に奉仕する喜びを与えて下さいましたが一方救われて以来の私の魂の奥底に働き始められ私の心がどんなに醜いものかを知らせて下さり、救われる以前には決して見る事のできなかった自分の姿を神の光に照らされて益々はっきりと見えるようにして下さいました。その為に私は今迄とは別の意味で苦しみ始めました。しかし神はその為に私の心が失望して弱り切ってしまうまいように絶えず聖書を通して励まして下さいました。この様に神に引寄せられつつ戒められつつ新しく生れ変わってから一年がたちました。冬が間近になった頃、又突如として腸閉塞が起りました。すぐ入

院し一時的な激しい苦痛は取れましたが、その後身体がすっかり弱ってしまい、又元の様にすっかりやせてしまいました。私は悲しくてたまらなくなり一生懸命お祈りしました。「神様私は罪が赦され、これから神様の為に一生懸命生きようと励んでおり、又病院伝道にもこんなに喜びをもって張切っているのにどうして又苦しめられるのですか」と。しかし神様は私の哀願に対して静けさを保っておられ依然として試練は続きました。神様は私の祈りを顧みて下さらない様に思えてとてもとても淋しい日が続きしました。然し心から肉に苦しんでも聖書を読む事を止める事ができず、一番値段の安いテープレコーダーを買って貰って毎日新約聖書を四章ずつ朗読しては繰返してそれを聴きました。詩篇の4篇に

「床の上で静かに自分の心に語りなさい」

とありますが、私は新約聖書を毎日規則正しく読む事によって自分の心の中を深く探られました。目を閉じ神の光に照らされて自分の心を深く省みていると、自分の気付く範囲だけでも過去に犯して来た罪の数々が並べられました。悪い映画やテレビを見て楽しんだ事、俗悪な週刊誌に耽った事、心の中で父や母や運命を呪った事、友人達を激しく嫉んだ事、家のお金を黙って持ち出した事、睡眠薬を買込んでいた事、しかも神様から与えられた生命を軽々しく考え取扱っていた事、兄弟喧嘩をした事、入院中にお医者さんや人々に色々積極的に迷惑

をかけた事、その他救われてからも止められない悪い癖、清くない心、本当に沢山沢山ありました。当然地獄の底に投げ込まれるべきこの私に、神様は長い間忍耐をもって愛を注ぎ続けていて下さったのです。その神の愛と忍耐を知るにつけ私は自分の罪に一層苦しみました。ローマ書6章を一生懸命読んでいた中に、肉体的苦痛と良心の責めにかんじがらめになっているこんな私が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釘付けになっている事を強く強く示されました。

「私達の古き人はキリストと共に十字架につけられた。それは罪の体が滅び最早罪の奴隷となる事がない為である」(ローマ書6章6節) その時は本当に神様に対して済まなかったという気持ちとキリストに対する感謝と喜びで一杯で涙が出そうでした。しばらくして神の憐みによって少し元気を回復して来ました。ザアカイ(ルカ19章)は神の自分に対する愛を知った時、今迄なして来た不正行為を一切償う決意をし、神の前に立派に悔改の果を表しました。私はザアカイの神に対する誠実な態度に深く心を打たれ自分も神の前に真実に悔改の果を表すべきだと強く強く思いました。然し意志の弱い私はどうしても恥しくてそれが実行できず半年間も悩み続けました。しかし神は何と憐み深いお方でしょう。こんなに意気地のない私の悩みを顧み聖霊によって私の心を強くして下さいました。

「私達が未だ弱かった頃キリストは時至つて不信心な者の為に死んで下さったのである」(ローマ書5章6節) 今もこの時の事を思い出すと毎にこの聖句の有難さがしみじみと分ります。ついに心に勇気を得た私は先ず父のもとに

救われる迄なして来た悪い行為を一切告白し、手をついて謝りました。(睡眠薬を買い込んでいた事、家のお金を黙って持ち出した事、心の中で父と母を呪った事等) 父は始めびっくりした様でしたが、神に対して真実であろうとする私の心を理解してくれ、喜んで許し、神に感謝して二人で一緒に神に祈りました。姉のところにも、今迄迷惑をかけた事、喧嘩をした事、黙って、ラブレターを盗み見た事(幼い時)、姉の机の引出しから無断で十円を取出して菓子を買った事などを真剣に言い表わして謝りました。姉は笑って聴いていましたが私は本当に真剣でした。又入院時代お医者さんに迷惑をかけた病院専用の衣具を無断で持帰り我が家で使いぼろぼろにしてしまった事を思い出して新しいのを作り「私は救われる前は本当に悪い人間でした。しかし今は救われて神の子となりました。イエス様を信じる事は本当に素晴らしい事です。あなたもどうかイエス様を信じて下さい」と書いた手紙を小包に添えて送りました。一つ一つ私の心の重荷は取去られて行き、それ以後は私の心に救いの確信が一層強められました。自分が神の子である事が嬉しくて教会の友人達を勧誘しては「君は救いの確信を持っているか?」と尋ね、その返事があいまいであるとそれではいけない。是非是非救いの確信を持つ様にと言う事を常としました。それから一層聖書を読むのが楽しみになり特に今迄読み始めるとすぐ睡気が来てなかなか読み続ける事ができなかった旧約聖書を毎日5章か6章ずつ根気よく学ぶ事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民数記やレビ記からも深い霊的教訓を教えられました。

(続 く)

印刷のことなら・・・

私たちにお任せ下さい

私たちは若いのです。

私たちは仕事に利益のみを追求していません。

皆さまに喜んでいただく「印刷製品」を造りあげ、皆さまのお役に立ちたいと奮んでおります。



韓国文・その他各種印刷

僑 文 社

大阪市西成区梅通5-2
電話大阪(06)661-4669